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총평 · 해설 · 적중 분석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총평

- 2023. 11. 16. 상상국어평가연구소

01 출제 경향 및 난이도

지난 9모에 이어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양한 난도의 문항을 설계하여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평가원의 방향이 구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올해 수능의 특징은 ① 독서의 추론적 요소 약화, ② EBS 연계율 강화, ③ 문학에서의 변별력 유지, ④ 선택 과목 간의 난도 차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지난 9모에 이어 독서 지문은 ‘중-중-중상’의 난도를 유지했다. 과도한 추론적 요소를 줄이고 정보 간의 비교,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문항을 내세워 변별력을 갖췄다. 이 같은 경향은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인문 지문에서 더 뚜렷했다. 문학은 대체로 평이했으나 갈래 복합 세트가 까다로웠다. 1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문항에 한정하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화작에 비해 언매가 더 어려웠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언어의 경우 평가원의 의도와 다르게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점수 차가 최소 4점 이상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급컷은 화작 89~90, 언매 84~85(원점수, 1컷 기준)점으로 예상된다.

02 영역별 분석

■ 독서

독서론은 EBS 수특 p. 282 <과정으로서의 독서>를 연계했다. 특히 핵심 개념인 ‘초인지’를 그대로 반영하여 선행 학습을 한 수험생들에게는 친숙했을 것이다. 3번 문항은 도식을 활용하여 화작 문항과 유사한 느낌을 주었다.

사회는 EBS 수특 p. 137. <선거 방송 보도의 종류와 특징>을 연계했다. 역시 핵심 키워드인 ‘경마식 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한 문단으로 요약했고,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을 다루어 체감 연계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입장을 비교하는 6번 문항,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관한 규정들을 특정한 상황에 적용하는 7번 문항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핵심 주장과 조건들을 고려하면 어렵지 않았다.

기술은 EBS 수특 p. 199 <이상치와 결측치의 처리>를 연계했다. 핵심 개념과 관련된 정보를 그대로 다루었고, 지문의 분량은 짧은 대신 설명이 친절해 비교적 부담 없이 소화해 낼 수 있다. 9번 추론 문항의 경우 정답 선지의 근거가 지문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 또한 10번 <보기> 문항은 최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확장 응용 유형으로, 지문과 <보기>의 두 기법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았다.

EBS 수특 p. 242. <한비자와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을 연계한 인문 복합은 (가)의 마지막 문단만 연계되어 다른 두 지문에 비해 연계율은 낮다. 그러나 노자의 ‘도(道)’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을 비교하는 데에 치중하여 개념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나 분석은 제시되지 않아 지문 자체의 난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문항 풀이 과정에서 각 견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각적으로 비교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특히 지난 9모와 유사한 유형인 15번 문항은 고려해야 할 판단 지점이 많은 고난도 문항이다. 16번 문항도 <보기>에 새롭게 제시된 관점에 따라 지문에 제시된 사상가들의 주장을 판단해야 하므로 까다로운 편이었다.

- **문학** 전체적으로는 지난 9모에 비해 난도 및 문항 구성의 측면에서 다소 평이했다. 총 7작품 중에서 EBS 연계 작품으로는 「김원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일동장유가」가, 비연계 작품으로는 「문」, 「잊음을 논함」, 「골목 안」, 「화암구곡」이 출제되었다. <보기>는 최근 경향에 맞춰 길이가 짧은 편이었고, 갈래 복합형 세트에서 2개의 <보기>가 제시된 형태도 유지되었다. 문항의 경우 세부 내용 및 전개, 장면이나 상황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문항들(19, 24, 29, 33번)이 다수 출제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사실관계만을 피상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세트별 난도 차이가 컸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갈래 복합의 경우 (다) 고전 수필은 ‘잊음’과 ‘잊지 않음’의 표현을 다양하게 변주하여 특정 구절에 대한 혼동을 유발하여 난도가 높았다. 시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24번, (다) 작품의 해석과 관련된 25, 27번 문항이 까다로웠고, 나머지 세트에서는 고난도 문항이 없었다.
- **화법과 작문** 지난 9모에 비해 쉽게 출제되었다. 특히 화법과 화작 융합 세트가 9모에 비해 상당히 쉬웠던 점이 체감 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선지의 구성 방식이나 문항 유형을 비롯한 전반적인 출제 경향은 9모의 기초를 유지하여, 형식 면에서 약간의 변화를 준 40번 문항 외에는 새로운 유형이 없었다. 작문 세트는 작년 9모 이후로 ‘글쓰기 내용의 반영 여부’, ‘조건에 따른 내용 생성’,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고쳐쓰기 문항이 화작 융합 세트에 통합되면서 이 같은 문항 구성이 정형화된 것으로 보인다. 40번 문항의 경우 정보의 사실 여부가 아닌, 정보의 반영 취지가 잘못된 점을 물어 난도가 높았다. 지문의 정보를 살짝 뒤튼 45번 문항이 다소 까다로웠지만 그 밖의 문항들은 다소 평이했다.
- **언어와 매체** 언어는 매우 어려웠다. 특이하게도 훈민정음 제자 원리가 지문형으로 출제되었는데, 2015학년도 수능 B형에 출제된 적이 있으나 많은 정보량, 지문에 표를 삽입하는 등의 형식적인 변화로 인해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이다. 35번은 훈민정음 자모음 체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표에 제시된 정보까지 분석해야 하므로 난도가 높다. 일반형인 37번은 결합 전후의 변화 양상을 <보기>에 제시된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까다롭다. 담화 상황을 다룬 38번은 분량이 적지 않아 선지 분석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39번은 부사어의 유형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매체는 정보량이 적고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정보 전달 방식, 수용 태도, 언어 표현의 적절성 등 기출과 유사한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어문 규범’이라는 소재를 활용한 점이 특이했다. 또한 두 번째 세트의 경우 앱 화면의 수정에 관한 45번 문항이 신선했다.

03 상상 모의고사와 수능

올해 수능은 기시감이 들 정도로 지난 9모와 매우 유사했다. 이는 정부와 출제 기관이 표방한 출제 방침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뜻한다. 즉, 그간 독서에 과도하게 치우친 난도를 다른 영역으로 분산하고, 중~중상 난도의 지문과 문항으로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이어질 것이다. 상상 모의고사는 이러한 입시 정책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고, EBS 연계 분석을 통해 수험생들의 학습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킬러 문항이 사라졌다고 해서 수능이 쉬워진 것은 아니다. 달라진 입시 경향에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상 모의고사가 힘을 보탤 것이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국어평가연구소

적중 분석

■ 적중 사례 모아보기

영역	제재(문항)	상상국어 적중 문항	적중 내용
독서	경마식 보도와 공직 선거법	상상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13차	지문 적중
	데이터에서 결측치와 이상치의 처리 방법	상상력 3호 4주차 DAY 4	지문 적중
	『노자』에 대한 한비자와 유학자들의 해석	상상력 10호 2주차 DAY 1	지문 적중
		상상력 10호 1주차 DAY 1	지문 적중
	초인지와 독서 전략	상상국어 5월 모의고사 2차	지문 적중
		상상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10차	지문 적중, 보기 적중, 선지 적중
	상상력 8호 미니 모의고사 3회	지문 적중	
문학	김원전	상상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1차	작품 적중
		상상력 7호 2주차 DAY 4	작품 적중, 보기 적중
		상상력 9호 4주차 DAY 4	작품 적중, 보기 적중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상상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6차	작품 적중, 보기 적중, 선지 적중
		상상력 5호 1주차 DAY 1	작품 적중, 선지 적중
		상상력 9호 1주차 DAY 5	작품 적중, 선지 적중
	일동장유가	상상국어 5월 모의고사 2차	작품 적중, 보기 적중, 선지 적중
		상상력 3호 4주차 DAY 3	작품 적중, 선지 적중, 보기 적중
		상상력 7호 2주차 DAY 2	작품 적중, 선지 적중
		상상력 9호 1주차 DAY 3	작품 적중
언어	국어사 (35번)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1일차	지문 적중
	형태론 (37번)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9일차	보기 적중
	담화 (38번)	상상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8차	선지 적중

독서: 사회 [4~7] <경마식 보도와 공직선거법>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13차 [4~7]

㉠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키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 「선거방송심사에 관한 특별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언론 단체의 ㉣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 여론 조사 보도는 유권자들이 선거 구도와 환경을 이해하고 여론의 추이를 관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득표율 예측, 지지율 변화 등 흥미적 요소만을 집중 보도하는 경마식 보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 등 선거의 본질적인 의제를 실증시키고 후보자 간의 지지율 경쟁에만 집중하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여론 조사 보도는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기간 중에서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여론 조사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여론 조사 보도가 자신의 의사 결정에 미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은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 내세워, 여론 조사 보도가 유권자의 후보 지지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박하는 학자들은 그와 같은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된 영향력은 유권자들의 인지적 편향으로 인해 실제 영향력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설문 조사를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지문 적중

독서: 기술 [8~11] <데이터에서 결측치와 이상치의 처리 방법>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력』 3호_4주차 DAY 4 [1~4]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또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푯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데이터 처리에서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 모델은 정상 범주를 벗어난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이상치라고 한다. 이상치 감지는 이상치를 정상적인 데이터인 정상치와 구분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이상치 감지는 주어진 데이터 값을 사용자가 지정한 정상 범주와 단순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데이터 값을 정상 범주와 단순 비교하는 알고리즘으로는 사진, 문자, 음성과 같이 복잡한 데이터에 대한 이상치 감지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 데이터들은 하나의 데이터가 수백 개 이상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속성의 값보다는 속성 간의 패턴이 이상치 감지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값을 단순 비교하는 알고리즘 대신 데이터로부터 속성 간의 패턴을 인공 지능에 학습시키는 기계 학습을 활용한다.

인공 지능의 학습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전에 다량의 데이터를 인공 지능에 제공해야 한다. 가령, 공장에서 카메라를 통해 제품의 결함을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 보자. 사용자는 제품의 서로 다른 사진을 인공 지능에 다양으로 제공한다. 학습을 위해 제공되는 사진들을 학습 데이터라고 하며, 학습 데이터 중 정상 제품의 사진은 정상치, 결함 제품의 사진은 이상치가 된다.

지문 적중

독서: 인문 [12~17] <『노자』에 대한 한비자와 유학자들의 해석>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력』 10호_2주차 DAY 1 [1~6]

(가)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 담긴 저작이다.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도에 근거해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비자는 전국 시대 말기의 법가 사상가이다. 법가는 종법 제도가 붕괴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학파이다. 종법 제도는 주 왕조가 개국 이래 전략적 요충지에 왕실의 일족을 제후로 임명하여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종법 제도 하에서 왕과 제후는 군신 관계이자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왕은 제후들을 도덕적 규범인 예(禮)로써 다스렸다. 그런데 시간이 ㉡ 흐르면서 왕과 제후의 촌수가 멀어지고 제후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왕과 제후 간의 정치적 관계가 변질되었다. 전국 시대는 각 제후국이 왕을 무시하고 천하를 차지하려고 침략 전쟁을 일삼은 시기이다. 법가는 이 같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예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法)을 새로운 통치 수단으로 제시했다. 그때까지 법은 하층민과 이민족을 통제하는 강제적 통치 수단에 불과했다. 그런데 법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을 모든 계층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법가의 사상은 제후들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비자는 법가 중에서도 ‘법’, ‘술’, ‘세’를 종합한 특유의 법치 사상을 제시한 사상가이다. 여기서 법은 모든 백성들이 준수해야 하는 문서화된 규정이고, 술은 군주가 신하와 관료들을 부리는 데 필요한 지략이며, 세는 군주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가져야 할 권위이다. 이 셋은 모두 필수 불가결한 통치 수단이지만 그중에서도 한비자가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간주한 것은 법이다. 한비자는 법이 만사를 제어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모두가 ㉢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는 법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상필벌과 엄형을 강조한다. 신상필벌과 엄형은 모두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고려한 방책이었다. 한비자에 따르면, 인간은 이익을 좋아하고 해를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적은 치하하고 죄는 처벌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죄인에게는 죄과보다 무거운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공을 세우려 하고 해를 피하기 위해 작은 범죄조차 저지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지문 적중

독서: 인문 [12~17] <『노자』에 대한 한비자와 유학자들의 해석>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력』 10호_1주차 DAY 1 [1~4]

(나)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안석은 『노자』를 저술했다.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氣)’라고 파악하고,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 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다.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자의 무명론은 ‘무명의 소박함’을 바탕으로 사회를 안정 시켜야 한다는 『도덕경』의 주장에서 그 핵심을 확인할 수 있다. 노자의 무명론은 명을 이상이자 현실의 지향점이라고 낙관한 정명론에 대한 반대 주장이다. 무명론은 공자와 달리 현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간관에 기초한다. 현실을 이상 실현의 장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계라고 본 것이다. 이런 세계에서 명은 개개인이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쉽사리 변질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임금은 권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신하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백성들은 자신의 이익을 ㉠ **도모할** 목적으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오히려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자는 명을 이기심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무질서의 극복 방안으로 예(禮)와 같은 이상을 제시한 공자에게 반대하며 명을 악용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 **소거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노자의 무명론은 사회 안정을 위해 탐욕과 이기심이 촉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유위(有爲) 즉 문명화된 행위를 제거하고 무지무욕(無知無欲)의 원시적 사회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는 반문명주의적인** 입장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명에 대한 공자와 노자의 입장은 상반된다. 공자는 조화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명을 긍정하자는 정명을 주장하고, 노자는 무위(無爲)를 위해 명을 부정하는 무명을 주장한다. 명에 대한 두 입장은 현실을 이념 구현의 장으로 바라보느냐, ㉢ **일체의 이념이 제거된 욕망 실현의 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지문 적중

독서: 독서론 [1~3] <초인지와 독서 전략>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국어 5월 모의고사 2차 [1~3]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이다.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다. 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A]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독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며 점검한다. 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 보는 방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예가 그것이다.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는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된다. 독서 목표를 고려하여, 독자는 ㉠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또한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하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간다.

능숙한 독자는 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자신이 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능숙한 독자는 독서를 할 때 자신의 인지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인 상위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독자의 상위 인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기 설명 읽기 훈련(SERT)이다.

자기 설명 읽기 훈련의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독자는 훈련용 글을 소리 내어 읽는데, 한 문장을 읽은 다음 그 의미를 자신의 말로 바꾸어 설명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문단을 끝까지 읽은 후에 해당 문단의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한다. 훈련용 글을 모두 읽은 다음에는 글 전체의 핵심 의미를 설명한다. 이때 글의 모든 내용을 언급할 필요는 없으며, 전체 글의 중심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단이나 문장을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독자는 자기 설명 읽기 훈련의 과정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말로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독자가 자신의 인지 과정을 점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글을 소리 내어 읽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이해가 미진한 부분에서는 더듬거림이나 막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위 인지 능력이 부족한 독자도 자신이 글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쉽게 점검할 수 있다. 이후 자신의 독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인식한 독자는 훈련 도중에 사전이나 참고 문헌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이해가 미진했던 부분의 앞뒤 맥락을 살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점차 자신의 인지 과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즉, 인지 과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자기 설명 읽기 훈련은 독자에게 상위 인지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문 적중

독서: 독서론 [1~3] <초인지와 독서 전략>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10차 [1~3]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이다.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다. 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A]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독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며 점검한다. 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 보는 방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예가 그것이다.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는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된다. 독서 목표를 고려하여, 독자는 ㉠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또한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하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간다.

[A] 읽기 전략은 직접적인 전략과 간접적인 전략으로 나뉜다. 직접적인 전략은 글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략으로, 그 내용을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하거나 다른 지식과 연결 짓는 방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직접적인 전략은 그 목적이 내용의 활용 및 확장적 사고를 위한 것이면 인지 전략으로, 난해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면 보상 전략으로 구분된다. 한편, 간접적인 전략은 글의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글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략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읽기 전략의 효용성을 점검하거나 이해 상태를 확인하는 메타 인지 전략과,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과 같은 신체적 활동 등을 이용하는 지원 전략이 있다.

읽기 전략들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를 보이며, 함께 사용되는 다른 읽기 전략을 보완하기도 한다. 따라서 ㉠ 읽기 전략에 대한 지식을 갖추면 보다 효과적인 읽기를 수행할 수 있다. 읽기 전략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읽기 능력과는 달리 취사선택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읽기 전략을 알고 있다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읽기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 사용 중인 읽기 전략의 적합성과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의 진단과 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읽기 전략은 독자의 어휘력이나 배경지식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며, 독서 경험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읽기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글을 읽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문 적중

독서: 독서론 [1~3] <초인지와 독서 전략>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 <보기>는 읽기를 읽은 학생이 독서 중 떠올린 생각이다. ㉠~㉣과 관련하여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 처음 나왔을 때는 무시하고 읽었는데 다시 등장했으니, 문맥을 통해 의미를 가정하고 읽어 봐야겠어. ㉠

↓

- 더 읽어 보았지만 여전히 정확한 뜻을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하지?
- 관련된 내용을 앞부분에서 다시 찾아 읽든가,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보든가, 다른 책들을 찾아볼 수 있겠네. ㉡
- 검색을 하려면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겠네. ㉢
- 검색은 나중에 하고, 먼저 앞부분을 다시 읽어 봐야겠다. 그다음에 다른 책을 찾아봐야지. ㉣
- 그럼 일단 앞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지 읽어 보자.

↓

- 앞부분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도움이 안 되네.
- 이 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어. ㉤

↓

- 이제 이 용어의 뜻이 이해되네. 그럼 계속 읽어 볼까?

- ① ㉠: ㉠을 판단하여 사용 중인 전략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 ② ㉡: ㉡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떠올렸다.
- ③ ㉢: ㉢를 고려하여 전략의 사용 조건을 확인했다.
- ④ ㉣: ㉣를 판단하여 전략들의 적용 순서를 결정했다.
- ⑤ ㉤: ㉤를 판단하여 최적이라고 생각한 전략을 선택했다.

상상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10차 2번

2. 다음은 학생이 자신의 읽기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A]를 바탕으로 ㉠~㉣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미국의 과학자 오펜하이머에 대한 영화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영화의 원전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읽었다. 책의 두께가 상당했지만, 다행히 책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도리어 일부 내용은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어렵지 않게 상상하며 읽을 수 있었다. 다만 이해가 힘든 부분이 없지는 않았다. ㉡가령 가끔 나오는 종교적 비유는 나름의 배경지식을 통해 이해해 보려 했지만 난해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다만 이 방법의 한계를 깨닫고는, 곧 앞뒤 문맥을 통해 추론함으로써 얼추 이해할 수는 있었다. ㉣한편, 다수의 인물이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손가락으로 글을 짚어 가며 읽어 보았지만, 이들을 완벽하게 구분해 내는 것은 역부족이었기에 결국 나름의 별명을 붙이며 정리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책은 꽤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책을 다 읽은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글의 내용을 활용하여 오펜하이머의 심리에 대해 가설을 만들며 재정리를 하기도 했다.

- ① ㉠: 글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는 인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 ② ㉡: 보상 전략을 사용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 ③ ㉢: 현재의 읽기 전략의 효용성을 점검한 뒤 상황에 맞는 메타 인지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 ④ ㉣: 간접적인 전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 ⑤ ㉤: 글을 읽는 중이 아니라도 인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보기	적중
선지	적중

독서: 독서론 [1~3] <초인지와 독서 전략>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력』 8호_미니 모의고사_3회 [1~3]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이다.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다. 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A]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독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며 점검한다. 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 보는 방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예가 그것이다.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는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된다. 독서 목표를 고려하여, 독자는 ㉠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또한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하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간다.

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글을 읽는 중에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독자 스스로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적절한 전략을 세워 글을 정확하게 읽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자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독서 중 점검하는 과정이 실제 읽기 능력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 읽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 결과 그들은 낮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가진 독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읽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자신의 읽기 과정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 질문하고 의심한다. 그 결과 그들은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가진 독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읽기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실제 읽기 능력과 자신이 평가한 읽기 능력 간의 차이는 더닝-크루거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무능한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셈이다. 이와 달리 유능한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을 지나치게 의심하기 때문에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자신이 평균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믿음은 자신의 읽기 능력에 대한 판단에도 적용된다.

읽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계속 낮은 읽기 능력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읽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잘 읽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독서를 할 때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면 그들의 읽기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

지문 적중

문학: 고전소설 [18~21] 「김원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1차 [18~21]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오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오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 수이 차도를 연사오면 남두성 잡기가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 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취하매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듣고 잠을 자려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길, “보검을 놓고 주무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머리맡에 세워 두라.”

하고 주거늘, 공주가 받아 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험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 작자 미상, 「김원전」 -

〔중략 줄거리〕 김원은 아귀에게 납치된 공주를 구출하지만 위기에 처하고, 이를 극복한 이후 용왕의 사위가 되지만 용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죽임을 당한다. 우여곡절 끝에 김원은 선녀의 도움을 받아 환생하게 된다.

상이 원수의 손을 잡고 반기며 치하하시니, 부인과 공주가 기별을 듣고 너무 기뻐서 취한 듯도 하고 미친 듯도 하며 정신이 몸에서 붙어 있지를 못하여 지향 없는 사람 같았다. 공주가 부인에게 고하여 원수를 경성에 가서 뵈옵기를 청하니, 부인이 그 바쁜 마음을 헤아려 허락하였다. ㉢ 공주가 소복을 벗고 체의를 입고 위의를 갖추고 시녀에게 당부하여 금 고양이를 잘 먹여 기르라 하고 경성으로 갔다.

이때 상이 승상 김규로 초공을 봉하고 김원으로 부마를 정하는 뜻을 반포하셨다. 그리고 예부로 하여금 택일하게 하여 김원으로 좌승상 겸 동백후 부마도위를 봉하고 그 모친 유 씨는 총렬 부인을 봉하셨다. 원수가 집에 돌아와 모친께 뵈오니 부인이 또한 슬픔을 금하지 못하였다.

이때 금 고양이가 원수의 오심을 듣고 변신하여 미인이 되어 승상 부부께 뵈니, 승상 부부가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지둥하며 답배하였다. 원수가 살펴보니 이는 곧 용녀이었다. 크게 놀라서 묻기를,

“부인은 형주에서 이별한 후에 어찌 이곳에 계시나이까?”

용녀가 말하기를,

“그때 환난을 지낸 후 고양이로 변신하여 공주의 슬하에 의지하였삽더니, 원수가 생환하시매 이제야 본모습으로 뵈나이다.”

승상이 말하기를,

“이런 신기한 재주로 어찌 그 환난을 구하지 못하였나이까?”

용녀가 말하기를,

“아무래도 한 번 겪을 운수이니 어찌 피하리이까?”

승상이 말하기를,

“우리 자식의 살아 돌아옴은 다 그대의 공이니 다른 술한 말이야 어찌 다 하리오?”

하고 큰 잔치를 배설하여 즐겼다.

- 작자 미상, 「김원전」 -

작품 적중

문학: 고전소설 [18~21] 「김원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력』 7호 64쪽_2주차 DAY 4

[중략 부분의 줄거리] 원은 황상을 뵈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원수가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계교를 베풀리이다.”

하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으니 모든 시너를 불러 말하기를,

㉠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가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 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풀리게 하소서.**”

아귀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작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으니 **적중** 취하며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장군은 잠간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듣고 잠을 자려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길, “보검을 놓고 주무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머리맡에 세워 두라.”

하고 주거늘, 공주가 받아 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 작자 미상, 「김원전」 -

“첩은 동해 용왕의 딸이옵니다. 대명 도원수 김원이 아귀를 소멸하고 용자를 구제하여 돌아오니, 용왕이 사위를 삼아 인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첩과 함께 왔습니다. 형주에 이르러 한밤중에 점주에게 원수가 해를 보옵고, 점주가 첩을 탈취하려 하였사오니 첩은 여러 가지로 변신하여 지금 조화 중에 있습니다. 원수의 시체는 계양산에 묻혔사오나 수한(壽限)이 멀었사옵니다. 시체를 찾으면 봉래산 구류선의 병에 든 물과 삼신산의 금강초가 있사오니 그 점주님을 죄주고 시체를 찾아 이 약을 먹이시면 원수가 환생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오니 그대로 바빠 시험하소서.”

상이 듣고 대회하여 외전에 나와 여러 신하들을 모으고 점주를 어형²한 후 결박하여 사관으로 하여금 호송하게 하여 계양산에 가 원수의 시체를 찾아내니 시체가 썩지 않고 평상시와 같았다. 금강초를 얻고 병에 든 물을 입에 부으니 원수가 일어나 앉으며 가로되,

“어찌 구천 리 길에 이곳에 있는고?”

- 작자 미상, 「김원전」 -

『상상력』 9호 98쪽_4주차 DAY 4

이때 금 고양이가 원수의 오심을 듣고 변신하여 미인이 되어 승상 부부가 뵈니, 승상 부부가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지둥하며 답배하였다. 원수가 살펴보니 이는 곧 용녀였다. 크게 놀라서 묻기를, “부인은 형주에서 이별한 후에 어찌 이곳에 계시나이까?”

용녀가 말하기를,

“그때 환난을 지낸 후 고양이로 변신하여 공주의 슬하에 의지 하였삽더니, 원수가 생환하시매 이제야 본모습으로 뵈나이다.”

승상이 말하기를,

“이런 신기한 재주로 어찌 그 환난을 구하지 못하였나이까?”

용녀가 말하기를,

“아무래도 한번 겪을 운수이니 어찌 피하리이까?”

승상이 말하기를,

“우리 자식의 살아 돌아옴은 다 그대의 공이니 다른 슬한 말이야 어찌 다 하리오?”

하고 큰 잔치를 배설하여 즐겼다. 이윽고 해가 서산에 지매 원수가 용녀와 함께 침소에 나아가니 금슬지락을 가히 알 수 있었다.

- 작자 미상, 「김원전」 -

문학: 고전소설 [18~21] 「김원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력』 9호 99쪽_4주차 DAY 4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 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 ① 서경태가 입적군을 동원해 아귀와 맞서고 원수가 계교를 마련해 아귀를 상대하는 데서,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군.
- ②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씻고자 아귀에게 대항하고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며 상경하는 데서, 인물들이 충군의 가치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원이 아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아귀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데서,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운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귀를 잡들게 하는 인물인 데서, 여성 인물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⑤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 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1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원전』은 주인공의 이계 탐험과 시련 극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첫 번째 이계 탐험은 충과 효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영웅성을 발휘한 주인공이 임무를 완수하지만 자신은 음모에 빠져 위기에 처하게 된다. 두 번째 이계 탐험은 첫 번째 이계 탐험과 이어지는데, 초월적 존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제공된다. 인간 세계로 돌아와서도 주인공의 고난은 계속되지만, 조력자의 도움으로 이를 이겨 내고 공을 인정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꿈꾸는 당대 독자들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강문추가 김원을 ‘죽게 하고 저의 공을 빼앗’겠다고 김원을 구출하지 않는 것에서, 주인공이 음모에 빠져 곤경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② 김원이 ‘황명을 받들어’ ‘아귀를 소멸하고 공주와 수많은 여자를 구하’였다는 것에서, 주인공의 임무가 충을 행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김원이 ‘용자를 구제’하고 ‘용왕’을 만나 그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에서,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조우하여 보상을 받게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군.
- ④ 김원이 ‘황성’에 이르러 ‘백관을 거느린 ‘천자’의 환영을 받고 ‘좌승상 겸 동백후 부마도위’의 자리에 오른 것에서, 주인공이 공을 인정받아 영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공주가 ‘소복을 벗고 체의를 입고 위의를 갖추고’ 김원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에서, 세상에 나아가 주인공을 돕고자 하는 조력자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군.

보기 적중

문학: 갈래복합 [22~27] 「가지가 담을 넘을 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6차 [32~34]

(나)

이렇게든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뉘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A]

[B]

[C]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도반: 함께 도를 닦는 벗.

(나)

이렇게든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 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뉘 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도반: 함께 도를 닦는 벗.

작품 적중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6차 [32~34]

24.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 ② [B]에서는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 ③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 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 ④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 밖’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 ⑤ [A]에서 ‘않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33.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욕망을 경계하게 된 계기이고, ㉡은 대상이 실수를 만회하게 된 이유이다.
- ② ㉠은 화자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요인이고, ㉡은 대상이 의욕을 상실하게 된 이유이다.
- ③ ㉠은 화자의 비극적 인식을 환기하는 요인이고, ㉡은 대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행위이다.
- ④ ㉠은 화자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는 계기이고, ㉡은 대상이 감정을 분출하게 된 이유이다.
- ⑤ ㉠은 화자가 목표에 도달하게 해 준 요인이고, ㉡은 대상이 자아 성찰을 위해 감행한 행위이다.

선지 적중

문학: 갈래복합 [22~27] '가지가 담을 넘을 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6차 [32~34]

27.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는 방식이나,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①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 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②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 ③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잊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④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 주목해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⑤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자연물에 인간의 모습을 투영하여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포의 모습에서 인생의 속명적 고통을 떠올린다. 이를 통해 인간은 고난과 좌절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 한계를 수용하면서도 그 한계에 맞서기도 하는 존재라는 점을 도출한다. (나)의 화자는 담장을 넘는 나뭇가지의 모습에서 장애를 딛고 한계를 극복하려는 삶을 떠올린다. 이를 통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위의 협력하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태도를 긍정한다.

- ① (가)의 '2억 년 묵은 이 칼자옥'은 오랜 기간 쏟아져 내린 폭포의 모습에 비추어 인간이 겪는 속명적 고통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② (나)의 '한없이 떨기만 했을' 가지를 믿어 준 '뿌리'와 '꽃과 잎'은 인간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주변의 신뢰와 협력을 상징한 것이군.
- ③ (가)의 '다시 바람은 쏜는다'는 포기하지 않고 저항해 나가는, (나)의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는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인간의 태도를 그려 낸 것이군.
- ④ (가)의 '나의 자랑은 자멸'은 실존적 한계를 수용하는, (나)의 '도박이자 도반'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자세를 보여 준 것이군.
- ⑤ (가)의 '맹목의 눈보라'와 (나)의 '고집 센 비'나 '도리 없는 폭설'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상기시켜 주는 고난과 역경을 나타낸 것이군.

보기 적중

선지 적중

문학: 갈래복합 [22~27] 「가지가 담을 넘을 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력』 5호 22쪽_1주차 DAY 1

(나)

이들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A]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뉘두는

[B]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C]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도반: 함께 도를 닦는 벗.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도반: 함께 도를 닦는 벗.

『상상력』 9호 30쪽_1주차 DAY 5

(나)

이들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 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A]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B]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뉘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C]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D]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E]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도반: 함께 도를 닦는 벗.

작품 적중

문학: 갈래복합 [22~27] 「가지가 담을 넘을 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력』 5호 22쪽_1주차 DAY 1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④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하여 대상과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감탄사를 활용하여 감정의 고조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선지 적중

문학: 고전시가 [32~34] 「일동장유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국어 5월 모의고사 2차 [18~23]
<p>날이 마침 극열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끓는 땅에 었디어서 말썽을 여쭙으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물 흐르듯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곡배하고 사퇴하니 친인이 망극하다 더위를 장히 먹어 막힐 듯하는지라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치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하네 여드레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 사당에 현알하고 웃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 손주 안고 어르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p> <p style="text-align: right;">[B]</p> <p style="text-align: center;">작품 적중</p> <p style="text-align: right;">[C]</p> <p style="text-align: right;">- 김인경, 「일동장유가」 -</p>	<p>십칠 일 사상네*가 뒷산에 오르시니 주먹만 한 한라산이 서북쪽에 멀리 보인다 악공 불러 삼현(三絃) 치니 굿 보는 이 장할시고 도주(鳥主) 서기 평공검이 들어와 우리 보니 나이가 겨우 이십이오 얼굴이 빼어나다 소견이 사랑하매 필담하고 보내니라 도주가 풍악을 보자 하매 진주 삼현 보내니라 십팔 일 동지 문안 삼방에 두루 다녀 망하레*는 틀이 종이 뒷산에 퍼서 베풀고 관왕(冠王) 갖추고서 사상네 남여(藍輿) 타고 행(行禮)한 후 풍류하고 앉으시고 행 중에 줄주는 이 차례로 시키시라 왜인이 받들어 모시되 흑철기에 밥을 담고 검은깨를 섞었으며 반찬 담은 칠한 그릇 전혀 중의 풍속이라 우스우나 정결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 김인경,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p>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국어 5월 모의고사 2차 [18~23]
<p>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 되었다. 「일동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 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된 개성적 공간에서의 공지를 드러냈다.</p> </div> <p>①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여 배를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군.</p> <p>② (나)는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른'이라고 하여 자신이 기른 화해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군.</p> <p>③ (가)는 '육선'에 탄 사신들이 만물이 격동할 만대 운이 떠나는 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군.</p> <p>④ (가)는 배에서 '신체'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짐사를,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군.</p> <p>⑤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는 양류풍에 감응하며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는군.</p> <p style="text-align: center;">보기 적중</p> <p style="text-align: center;">선지 적중</p>	<p>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타지에서 경험을 기록한 작품의 주된 정서는 말하는 이의 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에서는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화자가 고국으로의 귀환 의지를 드러냈고, (나)에서는 통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에 간 화자가 현지의 낮은 풍속과 문물에 대한 인상을 진솔하게 그려 냈다. 한편 (다)에서는 글쓴이가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겪은 일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개성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담았다.</p> </div> <p>① (가)에서 '봄날의 기운'이 있다는 것은, 청나라에 억류된 화자가 귀국을 향한 뜻을 품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p> <p>② (나)에서 '흑철기'와 '칠한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이 '우스우나 정결하다'는 것은, 일본의 풍속을 접하면서 화자가 받았던 인상을 나타낸 것이겠군.</p> <p>③ (다)에서 '만산을 뒤집을 빚'하다가 '잠든 양갈이 온순'해졌다는 것은, 글쓴이가 금강산을 유람하는 과정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강조하여 나타낸 것이겠군.</p> <p>④ (가)에서 '눈송이 새로 날리는 것'을 본다는 것과 (나)에서 '주먹만 한 한라산이 보인다'는 것은, 고국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을 통해 화자가 향수를 달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p> <p>⑤ (나)에서 '신체가 '한 조각'이라는 것과 (다)에서 '소복한 백화가 '한결같이 슬프게 서' 있다는 것은, 화자와 글쓴이가 타지에서 느낀 심회를 감각적으로 나타낸 것이겠군.</p>

문학: 고전시가 [32~34] 「일동장유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력』 3호 100쪽_4주차 DAY 3

(가)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륙도를 뒤 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되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뵈 만하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선두 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A]

(중략)

날이 마침 극열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끓는 땅에 었디어서 말썹을 여쭙으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물 흐르듯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곡배하고 사퇴하니 친은이 망극하다
더위를 장히 먹어 막힐 듯하옵지라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하네
여드레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처차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앓았구나
사당에 현알하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
손주 안고 어르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

[C]

- 김인겸, 「일동장유가」 -

장풍(長風)에 돛을 달고 여섯 배가 함께 떠나
㉠ 풍악 소리 군악 소리 산해(山海)를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魚龍)들이 응당히 놀라도다
해구(海口)를 얼핏 나서 오륙도(五六島) 뒤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夜色)이 창망(滄茫)하여
㉡ 아무것도 아니 되고 연해변진(沿海邊津)* 각 포(浦)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뵈 만하네
배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萬斛舟)*가 나뭇잎 부치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지의(紙衣)처럼 굽어 있고
선두 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중략)

이십 팔 일 발행(發行)할 새 수백 필 금안준마(金鞍駿馬)*
중하관(中下官)을 다 태우니 기구(器具)도 장할시고
각 방 하인들도 호사(豪奢)가 과분하다
(雙肩馬)요 한 놈은 우산 받고
하고 담배 기구 한 놈 들고
한 놈은 등불 들고 한 놈은 그릇 메어
한 사람의 기느린 수 여덟씩 들었구나
한참고 한참사는 가마 타고 먼저 가니
한 줄은 재고 큰 말 두 마리가 앞에 섰다
여염도 왕왕 있고 혼합은 배발이라
토지가 비옥하여 전답(田畓)이 아주 좋네
㉣ 이십 리 밖 실상사(實相寺)서 세 사신이 조복(朝服)*할 제
나는 내리지 않고 왜성(倭城)으로 바로 가니
인민(人民)이 부러(富麗)하기 대관(大阪)*만 못하여도
㉤ 서에서 동에 가기 삼십 리라 하는구나
관사(館舍)는 봉국사요 오층 성문(城門) 위에
여남은 구리 기둥 하늘 끝에 닿았구나
수석(水石)도 기이하고 대나무도 정취 있네
왜왕(倭王)의 사는 데라 사치(奢侈)가 측량없다

- 김인겸,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

- * 연해변진: 바다를 지키는 군영(軍營).
- * 만곡주: 만석을 실을 만큼 큰 배.
- * 지함: 움푹 가라앉아 꺼진 땅.
- * 금안준마: 금으로 장식한 안장을 엮은 좋은 말.
- * 조복: 관인이 조정에 나아가 하례할 때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입던 예복. 여기서는 예복을 입는 행위를 일컫는다.
- * 대관: 오사카.

작품 적중
대목 일치

문학: 고전시가 [32~34] 「일동장유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력』 7호 56쪽_2주차 DAY 2
<p>(가)</p> <p>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해구를 열린 나서 오륙도를 뒤 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되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뵈 만하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대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p> <p>(중략)</p> <p>날이 마침 극열하고 석양이 비껴어서 끓는 땅에 었다어서 말뚝을 여쭙으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물 흐르듯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곡배하고 사퇴하니 친은이 망극하다 더위를 장히 먹어 막힐 듯하는지라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하네 여드레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앓았구나 사당에 현알하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 손주 안고 어르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p> <p>- 김인겸, 「일동장유가」 -</p>	<p>지명은 하내주(河內州)요 사십 리 와 있구나 ① 이십팔 일 발행(發行)할 새 수백 필 금안준마(金鞍駿馬)* 중하관(中下官)*을 다 태우니 기구(器具)도 장할시고</p> <p>(중략)</p> <p>왜황(倭皇)의 사는 데라 사치(奢侈)가 측량없다 산형(山形)이 웅장하고 수세(水勢)도 환포(環抱)하여 옥야천리(沃野千里)*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플손 이리 좋은 천부(天賦) 금탕(金湯)* 왜놈의 기물(器物) 되어 칭제(稱帝) 칭황(稱皇)하고 전자(傳子) 전손(傳孫)하니 개똥 같은 비린 유(類)를 다 몰속(沒屬) 소탕(掃蕩)하고 사천 리 육십 주를 조선(朝鮮) 땅 만들어서 왕화(王化)에 목욕(沐浴) 감겨 예의(禮儀) 국민 만들고자</p> <p>- 김인겸,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p>
<p>[A]</p> <p>[B]</p> <p>[C]</p>	<p>『상상력』 9호 23쪽_1주차 DAY 3</p> <p>이십 팔 일 발행할 새 수백 필 금안준마 중하관(中下官)을 다 태우니 기구도 장할시고 각 방 하인들도 호사가 과분하다 좌우에 쌍견마요 한 놈은 우산 받고 두 놈은 부축하고 담배 기구 한 놈 들고 한 놈은 등불 들고 한 놈은 그릇 배어 한 사람의 거느린 수 여덟씩 들었구나 나하고 삼 문사는 가마 타고 먼저 가니 금안 지운 재고 큰 말 두 마리가 앞에 섰다 여염도 왕왕 있고 혼할손 대발이라 토지가 비옥하여 전답이 아주 좋네 이십 리 밖 실상사서 세 사신이 조복(朝服)*할 제 나는 내리지 않고 왜성(倭城)으로 바로 가니 인민이 부러하기 오사카만 못하여도 서에서 동에 가기 삼십 리라 하는구나 관사는 봉국사요 오층 성문 위에 여남은 구리 기둥 하늘 끝에 닿았구나 수석도 기이하고 대나무도 정취 있네 왜왕(倭王)의 사는 데라 사치가 측량없다</p> <p>- 김인겸,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p>

작품 적중

문학: 고전시가 [32~34] 「일동장유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력』 3호 100쪽_4주차 DAY 3
<p>32.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p> <p>②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p> <p>③ (나)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해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p> <p>④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p> <p>⑤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p>	<p>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①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역진적 구성이 나타난다.</p> <p>② 풍자적 기법으로 당시의 세태와 관습을 비판한다.</p> <p>③ 국외에 머물면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성찰한다.</p> <p>④ 허구적 인물을 설정하여 작가의 관점을 대변하도록 한다.</p> <p>⑤ 규칙적인 음보를 활용하여 서술 내용에 운율감을 부여한다.</p>
<p>『상상력』 7호 56쪽_2주차 DAY 2</p>	
<p>4.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p> <p>②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p> <p>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극한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p> <p>④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p> <p>⑤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p>	
<p>선지 적중</p>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력』 3호 100쪽_4주차 DAY 3
<p>33.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A]에서는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에 의지해, 떠난 곳을 가늠하는 행위를 통해 출항 후의 모습이 드러난다.</p> <p>② [B]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에 감격한 마음이 드러난다.</p> <p>③ [C]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드러난다.</p> <p>④ [A]에서는 포구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B]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 뜨거운 땅에 엎드려 있는 일을 힘겨워하는 상황이 드러난다.</p> <p>⑤ [A]에서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험이, [C]에서는 과거의 위험했던 경험에 대한 소회가 드러난다.</p>	<p>7.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 과장된 표현을 통해 통신사 일행이 출항할 당시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p> <p>② ㉡: 시각적 심상을 통해 고국에서 멀어지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p> <p>③ ㉢: 비유적 표현을 통해 해상에서 겪은 풍랑의 위험성을 부각하고 있다.</p> <p>④ ㉣: 행위의 대비를 통해 서둘러 귀국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p> <p>⑤ ㉤: 구체적 수치를 통해 왜성의 규모와 성문의 높이를 표현하고 있다.</p>
<p>선지 적중</p>	

문학: 고전시가 [32~34] 「일동장유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력』 3호 101쪽_4주차 DAY 3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일동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된 개성적 공간에서의 공지를 드러냈다.

- ①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여 대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군.
- ② (나)는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뻐'이라고 하여 자신이 기른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군.
- ③ (가)는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 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군.
- ④ (가)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⑤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는 양류풍에 감응하며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는군.

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일동장유가」는 작가 김인겸이 1763년 8월 일본에 파견되는 통신사(通信使)를 수행하면서 약 11개월 동안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작품이다. 통신사 일행 500여 명은 서울을 떠난 지 두 달 만인 10월 6일 부산항에서 승선하여 오사카, 교토 등을 거쳐 이듬해 2월 16일 에도(江戸)에 도착하였다. 긴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과 일본의 풍속 등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한편, 작가의 주관적 느낌이나 평가를 함께 진술하여 기행 문학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 ① 날짜와 지명 등을 분명하게 제시했어. 이를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려고 한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통신사 일행은 여섯 척의 배를 나누어 타고 부산항을 출발했어. 이때 화자는 일본으로 향하는 여정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기도 하는군.
- ③ 일본에서는 통신사 일행을 극진하게 대접했어. 이에 대해 화자는 하인들마저 과분한 호사를 누리도록 한 환대라면서 만족감을 드러내는군.
- ④ 비옥한 논과 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백성들은 가난을 면하지 못했어. 화자는 그 원인을 일본의 지배층이 부패한 탓으로 돌리고 있군.
- ⑤ 일왕이 사는 성은 아름다운 자연물로 장식되어 있어. 화자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사치스럽기가 헤아릴 수 없다면 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군.

보기 적중

언어: [35] 「훈민정음 제자 원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4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_1일자

훈민정음 초성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5자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획의 원리(예: ㄱ→ㅋ)에 따라 만든 가획자 9자와 그렇지 않은 이체자 3자가 있다. 중성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3자가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초출자, 재출자가 각 4자가 있다. 중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쓰되 중성에서 실제 발음되는 소리에 대응되는 8자만으로 충분하다 보았는데, 이는 『훈민정음』(해례본) 용자례에서 확인된다.

용자례에서는 이들 글자를 위주로 하여 실제 단어를 예로 들고 있다. 예컨대, 용자례에 쓰인 ‘콩’은 초성자 아음 가획자인 ‘ㅋ’의 예시 단어이다. 이 방식을 응용하면 ‘콩’은 중성자 초출자 ‘ㄱ’와 중성자 아음 이체자 ‘ㅇ’의 예시로도 쓸 수 있다. 용자례의 예시 단어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성자 용자례〉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기본자	ㄱ	노로	미(산)	섬	반암(배)		
가획자	콩	뒤(띠)	벌	조히(종이)			
이체자	러울(바꾸레)	고티	파	채	부형	어름	이스(아쉬)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훈민정음의 모든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다.
- ② 초성자 기본자는 모두 용자례 예시 단어의 중성에 쓰인다.
- ③ <초성자 용자례>의 가획자 중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아음에 속한다.
- ④ <초성자 용자례> 중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는, 초성자의 반설음자와 중성자의 반설음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 ⑤ <중성자 용자례> 중 초출자 ‘ㄱ’의 예시 단어는, 반치음 이체자와 중성자 순음 기본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훈민정음의 초성 제자 원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훈민정음은 독창적인 원리에 따라 창제되었다. 초성의 기본자 ‘ㄱ, ㄴ, ㄷ, ㅌ, ㄴ, ㅇ’은 각 조음 위치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뜬 상형(象形)의 원리로, 초성의 나머지 글자들은 대체로 가획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어졌다. 가획의 원리란, 어떤 글자의 음보다 소리가 약간 센 음을 원래의 글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다는 원리이다. 가령 ‘ㄴ→ㄷ→ㄸ’으로 획이 더해질수록 소리가 점점 더 세지는 것이다. 한편, 상형의 원리나 가획의 원리가 아니라 따로 만들어진 이체자 ‘ㅇ, ㄹ, ㅍ’도 있다. 다음은 초성 17자의 제자 원리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상형(象形)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아음(牙音, 어금닛소리)	ㄱ	ㅋ	ㅇ
설음(舌音, 혀소리)	ㄴ	ㄷ	ㄸ
순음(唇音, 입술소리)	ㅁ	ㅂ	ㅍ
치음(齒音, 잇소리)	ㄷ	ㅌ	ㅊ
후음(喉音, 목청소리)	ㅇ	ㅎ	ㅎ
반설음(半舌音, 반혀소리)			ㄹ
반치음(半齒音, 반잇소리)			ㅍ

- ① ‘ㄱ’, ‘ㅋ’, ‘ㅇ’은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초성자들이다.
- ② ‘ㄴ’, ‘ㄷ’, ‘ㄸ’ 중에 ‘ㄴ’이 기본자이므로 가장 약한 소리가.
- ③ 가획의 원리에 따라 ‘ㄷ→ㅌ→ㄸ’으로 획이 더해질수록 소리가 점점 더 세어지는군.
- ④ 가획의 원리에 따라 ‘ㄷ→ㅌ→ㅊ’으로 획이 더해질수록 소리가 점점 더 세어지는군.
- ⑤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소리는 대체로 비슷한 모양을 갖게 되었군.

지문 적중

언어: [37] 「용언의 활용」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4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_9일차

37. <보기>를 바탕으로 ‘ㅎ’ 발음 용언의 활용 유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 기>

다음은 어간의 발음이 ‘ㅎ’인 용언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때 보이는 활용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활용의 규칙성뿐만 아니라 모음조화 적용 여부나 활용형의 줄어듦 가능 여부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된다.

불규칙 활용 유형		규칙 활용 유형	
㉠-1	노랑-+아→노래	㉡-1	달-+아→달아(→*다)
㉠-2	누렁-+어→누레	㉡-2	놓-+아→놓아(→*다)
㉢	어떻-+어→어때		

(*은 비문법적임을 뜻함.)

한글 맞춤법 제18항에서는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표기 원칙을 밝히고 있다.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거나, ㉡어미의 모양이 달라지거나, 어간과 어미의 모양이 모두 달라지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은 국어사전의 [활용] 표기에 반영되어 있다. 아래는 국어사전의 일부를 간추려 제시한 것이다.

신다 발음 [신:따]
 (활용) 실어[시러], 실으니[시르니], 신는[신:는]

하다 발음 [하다]
 (활용) 하여[하여](해[해:]), 하니[하니]

파랳다 발음 [파:라타]
 (활용) 파래[파:래], 파라니[파:라니], 파랳소[파:라쏘]

- ① ‘조그맣-, 이렇-’은 ‘조그맸, 이래서’로 활용하므로 ㉠-1과 활용의 유형이 같겠군.
- ② ‘꺼멧-, 뿌엷-’은 ‘꺼멧, 뿌엷다’로 활용하므로 ㉠-2와 활용의 유형이 같겠군.
- ③ ‘둥그렇-, 멀겁-’은 ‘둥그렷다, 멀겁’로 활용하므로 ㉢과 활용의 유형이 같지 않겠군.
- ④ ‘날-, 땅-’은 활용형인 ‘날아서, 땅았다’가 ‘나서, *땃다’로 줄어듦 수 없으므로 ㉡-1과 활용의 유형이 같겠군.
- ⑤ ‘녕-, 쌓-’은 활용형인 ‘녕어, 쌓아가’가 ‘너, *짜’로 줄어듦 수 없으므로 ㉡-2와 활용의 유형이 같지 않겠군.

동사 ‘신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이 ‘실-’로 바뀐다. 한편 동사 ‘하다’는 어미의 모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어간 ‘하-’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하어’가 되지 않고 ‘하여’로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형용사 ‘파랳다’는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모양이 모두 달라져 ‘파랳+아’가 ‘파래’로 실현된다.

보기 적중

언어: [38] 「담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상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8차 39번

3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영민, 평화가 학교 앞에 함께 있다가 지혜를 만난 상황]
 영민: 너희들, 오늘 같이 영화 보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평화: 응, ㉠6시 걸로 세 장 예매했어. 근데 너, 어디서 와?
 지혜: 진로 상담 받고 오는 길이야. 너흰 안 가?
 평화: 나는 어제 ㉡미리 받았어.
 영민: 나는 4시 반이야. 그거 마치고 영화관으로 직접 갈게.
 지혜: 알겠어. 그럼 우리 둘이는 1시간 ㉢앞서 만나자. 간단하게 저녁이라도 먹고 거기서 바로 ㉣가지 뭐.
 평화: 좋아. 근데 ㉤미리 먹는 건 좋은데 어디서 볼까?
 지혜: 5시까지 영화관 정문 ㉥왼쪽에 있는 분식집으로 와.
 평화: 왼쪽이면 편의점 아냐? 아, 영화관을 등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구나. 영화관을 마주볼 때는 ㉦오른쪽 맞지?
 지혜: 그러네. 아참! 영민아, 너 상담 시간 됐다. 이따 늦지 않게 영화 ㉧시간 맞춰서 ㉨와.

- ① ㉠과 ㉡은 가리키는 시간이 상이하다.
- ② ㉢과 ㉣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가리킨다.
- ③ ㉤과 ㉥이 가리키는 시간대는 ㉦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④ ㉧과 ㉨은 이동의 출발 장소가 동일하다.
- ⑤ ㉩과 ㉪은 기준으로 삼은 방향이 달라 다른 곳을 의미한다.

39.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독서 동아리 부원인 태훈, 진영, 우빈이 학교에서 만난 상황)
 태훈: 안녕, 애들아. 잘 지냈어? 이번 독서 모임 시간에 같이 입을 책은 정했니?
 진영: 네, 선배. ㉠저희는 (책을 보이며) ㉡이 책으로 골랐어요.
 우빈: 그때 말하신 ㉢그 책은 좀 어려워 보여서 이걸 선택했어요. 저번에 사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책이요.
 태훈: 아, ㉣그 책이 ㉤이 책이구나. 좋아. 나도 한번 읽어 보고 싶었어.
 우빈: 그러셨군요. 잘됐네요. 잠시만요. (전화를 받으며) 네, 엄마. 아빠는요? 아, ㉥방금 ㉦오셨어요? 그럼 지금 빨리 갈게요.
 태훈: 우빈아, 얼른 가 봐. ㉧우리도 ㉨금방 ㉩갈 거야.
 우빈: 네, 선배. 그럼 저는 먼저 가 볼게요. 진영아, 내일 보자.
 진영: 그래. 잘 가, 우빈아. 내일 보자.

- ① ㉠은 ㉡과 달리 가리키는 대상에 청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은 ㉣과 달리 발화 현장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 없다.
- ③ ㉤은 ㉥과 달리 지시 표현이 앞의 발화를 직접 가리키는군.
- ④ ㉦은 ㉧과 달리 청자 입장에서 주체의 이동 방향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과 달리 발화 시점에서 바로 조금 후를 나타내는군.

선지 적중